

<하루>

날짜: 2013. 5. 12 (일) / 날씨: 맑음 / 작자: 선형석

새벽까지 카톡, 카스 등을 하다가 잠이 들고 오전 9시 20분쯤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오늘은 준비가 일찍 끝나서 교회에 일찍 도착했다. 점심까지 예배를 드린다음, 점심을 먹은 뒤,
좀 쉬다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 있는 어린 동생들하고 좀 놀아주다가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왔다. 그런데 갈증이 나기도 하고 시원한 게 먹고 싶어서
근처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가서 아이스크림까지 골랐는데 까먹고 지갑을 놓고 와서 아이스크림은 도로 놓고
후회하면서 정류장으로 돌아가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서 집에 도착!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을 하고 TV도 보고 간식도 먹으며 쉬는 시간을 보내고 최근에 자전거가 많이 낡기도
했었고 여기저기 망가진 곳이 많아 새로운 자전거를 사기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자전거 가게에
가서 자전거를 고르려 하는데 웬만한 자전거는 대부분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는 해서
그나마 저렴한 8만원짜리 흰색 자전거를 사고 그 전에 쓰던 자전거는 만원에 팔았다.
예전에 쓰던 자전거는 여기저기 불편한 점이 많아서 답답하고 불편했었는데 새 자전거를 사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바퀴 돌고 오랜만에 내가 졸업한 중학교도
가보았다. 이것저것을 돌아다닌 뒤 집으로 와서 쉬다가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래서 다같이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조금씩 도왔다. 평소에 내가 자전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컴퓨터로 자전거 관리법, 종류, 수선도, 규율 등 자전거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다.
조사를 해보니 자전거도 은근 손이 많이 가서 관리를 잘 해야 오래간다고 한다. 조사를 마친 뒤
내 방 청소 및 정리를 했다. 오랜만에 했더니 할 게 많았다. 청소를 하다보니 벌써 열한 시가
되서 내일 학교에 가져갈 것들을 준비해놓고 씻은 다음 이 일기를 쓰고 있다.
그럭저럭 잘 보낸 하루인것 같기도 하고 책도 안읽고 공부도 안해서 좀 걱정되기도 하다.
곧 있음 모의고사라던데 뭐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라서 걱정이다.
왜이리 나는 아는데 없는걸까? 입학사정관제? 그런 것도 모르겠다. 고등학생이 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알고 있는 게 너무나없이 부족하다. 이래서는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막막할 뿐이다.